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5주일

제35권 11호(나해) 2015년 2월8일

[묵상]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

참 신났겠다.

스승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치유의 기적을 보고
얼마나 신이 났겠는가!
악령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는가 하면
많은 병자와 마귀를 쫓아내 주신다.

인기 절정!

단순히 한 말씀으로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 주시니
병자들은 물론 제자들을 얼마나 신이 났겠는가!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주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
외판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선생님을 찾으려 다녔다.

'샘, 샘, 여기서 뭐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두 샘을 찾고 난립니다.
어서 또 고쳐 주지요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다.
단순히 기적쟁이나 마술사로 비치어 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이 근방 다음 동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그 분은 떠나셔야 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났었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필주 바오로
	(생)김석기 스테파노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김복순 막달레나, 송종복 & 양옥분 켈마, 현시영 요셉, 김기준 안젤라, 변해경 올리안나, 박동욱 요셉, 권분남 콜롬바,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김중환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이필주 바오로
	(생)정하상 바오로 & 정율리아 & 정쥬마 & 정클라라, 엄유진 토마스아퀴나스, 서성용 베드로, 김정석 베드로, 이강웅 요셉, 민기남 모니카 & 이귀애 테레사, 최석원 안드레아 & 박민아 로셀리나, 권순길 세실리아,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오 마우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욥기(Job) 7,1-4.6-7

화답송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날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제 2독서 1 코린도(Corinthians)9,16-19.22-23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복음 마르코(Marco)1,29-39

영성제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임당	주 찬양합니다	218	218
봉헌	423	270	268
성체	382	299	284
파견	364	215	215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세신

제3장

‘성령세신운동’의 빛과 그늘

2) 가계(家系) 치유

‘가계 치유’의 추종자들은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서 ‘하느님께서 조상의 죄악을 삼 대, 사 대의 후손까지 벌하신다.’는 내용의 몇몇 구약 성경 구절들(예를 들어서, 탈출 20,5; 34,7; 민수 14,18; 신명 5,9)을 내세운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은 하느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푸신다는 내용의 말씀(탈출 20,6; 34,7; 신명 5,10)과 항상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자애는 매우 충만하여 그분은 세세 대대로 자애를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죄악을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는 경고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절들을 근거로 조상의 죄악이 운명적으로 혈연을 따라서 대물림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들의 배경이 되는 사상은 죄의 연대성(連帶性)이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이들에게,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그러나 죄의 연대성만이 아니라 은총의 연대성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오로 사도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음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은총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가르친다(로마5,12-21 참조). 그뿐만 아니라 은총의 연대성이 죄의 연대성을 능가한다고 강조한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로마 5,20).

죄의 연대성이 죄의 대물림으로 왜곡되어,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조상들의 잘못이 후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후손들이 그 잘못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부모가 부도를 당한 경우에 자식들이 부모의 고통을 분담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제키엘 예언자는 이런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말해 대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 있는 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 아들은 아버지의 췌값을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췌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의인의 의로움은 그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간다”(예제 18,2-4.20; 참조: 예레 31,29-30). 예수님께서도 한 개인의 악행과 불행의 원인을 전적으로 조상의 죄와 잘못에서 찾는 태도를 분명하게 거부하셨다(요한9,1-3 참조).

<◆계속>

고통보다 큰 하느님의 사랑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현저히 길어졌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도 쉽게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대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은 피할 수 없나 봅니다.

오늘 첫째 독서의 주인공은 고통 한가운데 있는 인간, 욕입니다. 그는 일곱 아들과 세 딸을 두고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복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달아 닥친 불행은 한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전부 잃고, 재산도 사라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성 종양이 덮쳐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고통에 짓눌린 욕은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라고 부르짖으며,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절망의 말을 내뿜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누구나 욕처럼 절규하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낮게 해주십니다. 갖가지 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호의적으로 돌보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묵시 21,4) 미래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세상이 당신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편안하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 길을 떠나십니다.

좋은 부모 같은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인 우리가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종종 우

리가 고통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좋으신 하느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낱알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철이 들라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타내어 멀리 떠났지만, 그 돈이 바닥나자 무진 고생을 한 끝에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철부지가 철이 들도록 고생길로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 고통을 당하면 하느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어 당신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분입니다. 설사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느님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도록”(로마 8,28)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믿읍시다. 아울러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 곁에서 힘이 되어 줍시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된 사도 바오로처럼 말입니다. ◆ 손희송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

너무 쉬운 것 앞에서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 그것이 미끼 줄 알고 물었겠나.
제 목젓이 걸릴 줄 알면서도 덤석 물지는 않았겠지.
맛있게 깊게 삼키고 나서야
그게 지렁이만이 아니고 새우만이 아니란 걸 알았겠지.
한 번 물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매혹, 거부하기 힘들더라.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레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十 사순시기 十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가지 회수

오는 2월18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2월15 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미사

- 오전8:30, 오후 &:30,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금육과 단식)
-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2월20,27,3월 6,13,20,17일,4월 3일)

재의 예식 다음금요일: 배론청년회
사순1주간 금요일: 꾸리아
사순2주간 금요일: 소공동체
사순3주간 금요일: 요셉회
사순4주간 금요일: 양업회
사순 5주간 금요일: 대건회
성 금요일 (오후 3시):안나회

◆ 을미년 '설날' 합동 위령미사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 친지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설날 합동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2월19일(목)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연도와 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후 세배와 떡국 나누기
- 미사예물 봉헌 : 사무실

◆ 바오로 딸 도서선교

- 일시 : 2월 7일(토)~2월 8일(주일)미사 전후
- 장소: 성당 앞마당 또는 친교실
- 내용: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바오로 딸 수녀들이 한국에서 와서 책, CD, DVD를 전시, 판매하오니 많은 관심과 구입바랍니다.
- ... 전신자대상 영상피정
- 일시 : 오늘 주일(8일)미사
- 제목: 나와 가족 새로 발견하기
- 주제: 우리들의 평범한 아버지들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나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다. 새해, 새달을 맞아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준다.

◆ 요셉회 설날 대잔치

- 일시 : 2월15일(주일)12시30분~4시30분
- 행사내용 : 추억의 노래부르기, 제기차기 윷놀이
- 참가대상 : 요셉 회원이 아닌 분도 65세 이상이면 부부 동반 환영합니다. 음식과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 정기은비오 ☎(310)780-2789

◆ 주일학교 복사단 Lock-in을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제대에서 봉사하는 학생 복사단 여러분, 도움주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8일(주일) * 토북1반 : 미역국(\$3)
* 주일학교 : 스파게티(6학년)
- 2월15일(주일) *하버/카슨반 : 수제비국 (\$3)
* 주일학교 :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 수업 없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고천용 김 욱 김 은 김관기 김광자 김교복 김병철 김병학 김선제 김우용 김원모 김정훈 김정웅 김정희 김중훈 남성철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변정선 석순영 성낙호 손 석 송재훈 오일순 유보나 윤석구 윤화경 이경태 이귀분 이근모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주영 전정일 조준제 최기남 최의수 하정화 이크리스 영희가보라	성전헌금	강태홍 고천용 김 욱 김관기 김광자 김교복 김병학 김선제 김우용 김원모 김정희 남성철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변정선 석순영 성낙호 손 석 윤화경 이경태 이귀분 이근모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조준제 최기남 하정화 이크리스 영희가보라
	합계:\$4,435		합계 : \$2,660
주일미사 헌금 : \$2,859	2차헌금 : \$708	성물판매 : \$ 2,292	광고: \$50

◆2월 15일(주일)은 프레지던츠 데이연휴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대체휴일로 화요일에 휴무입니다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2월27일(금)~3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참가비 : \$60 (1/18~2/8 등록시), 이후 \$85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주일학교 사순 피정학부모설명회

- 오늘주일(8일) 오후1시 성전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마르코 복음 (Mark), 노트 제공 (2월 8일)
- 대상: 주일학교 모든 학생
- 필사 마감: 3월 29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부활 대 축일 미사 중 (4월5일)
- *시상은 전권을 필사한 아이들에게만 한함

◆제 4회 <백범 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 주최: 미주한국학교연합회 (KOSAA)/ 백범 김구선생 기념
사업 협회, 재단 법인 김구 재단
- 대상: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산하 한국/한글 학교 재학 중인
4~12학년

◆제 40회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 시험 실시일: 4/25/2015(토) 09:00 ~ 16:00
- TOPIK 1: 09:00 ~ 11:00
- TOPIK 2: 12:00 ~ 16:00 (중간 휴식 30분 포함)
- 접수기간: 01/08/2015 ~ 02/14/2015(토)

◆2015년 제19회 SATII한국어 모의고사

- 자격: 7 학년 이상 한국학교 재학생 및 일반 동포 자녀
- 신청서 마감: 2015년 2월15일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장
☎213-700-9399 103skecks@gmail.com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미주 평의회

- 제목: 봉헌을 위한 준비 특강
- 일시: 2월 16일 (월), 17일 (화) 오후 6:30
- 장소: 성바실 한인천주교회 본당지하
- 강사: 김문상 디오니시오 신부님 (가톨릭 신문사)

노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드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유철희 바오로 991-4838 2 / 14(토) 오후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2/14(토) 오후 6시 성당강당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2/13(금) 오후 7시30분 성당 1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충섭 마틴 530-3010 2/14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2/14(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2/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용 스테파노 625-3312 2/20(금)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634-6923 2/13(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3 2/14(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조화숙안젤라 & 박카타리나 2/9(월) 오후 7시 성당강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주영애 겐마 749-3151 2/7(토)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PV구역 합동 반모임 2/14(토) 5시 남성철 베네딕도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합동 반모임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모임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 21 > 동정부부 1.

유중철 요한?(1779~1801)

이순이 루갈다(1782~1802)

이순이 루갈다는 1782년 한양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의 부친인 이윤하 마태오는 당대의 학자 이익의 외손으로, 처남인 권철신, 권일신 형제, 이승훈 등과 어울리다가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이순이의 모친도 자연스럽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는데, 어린 이순이는 일찍부터 모친에게서 글과 교리를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효경」 등 경전을 배워 익힌 이순이는 학문과 지식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문필가 집안의 재능도 물려받아 그녀가 남긴 「옥중 편지」는 문장이 깊고 맑고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5세가 되던 1797년 어느 날, 이순이는 이미 오래 전에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크게 놀란 어머니는 대견함과 현실적인 염려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앞장서 삼강오륜을 지켜야 했던 양반가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혼인시키지 않는 것은 일종의 패륜으로 여겨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선택을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생각한 어머니는 평소 언행이 가락하고 믿음이 깊었던 딸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승낙이 떨어지자 이순이는 주문모 신부에게 동정생활을 결심하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신부는 이순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전주의 유중철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주신부가 전주 유항검의 집에서 며칠 머무를 때, 유항검의 아들 중철이 아버지와 주신부에게 동정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주신부는 이들의 결심을 지켜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주신부 역시 조선 사회의 여론과 이목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멸절한 처녀 총각이 결혼하지 않는다면 '동정'에 관한 천주교 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당장 천주교 신자로 의심받기 십상이고, 결국에는 화가 닥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궁리 끝에 주신부는 두 사람이 동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아예 두 사람을 혼인시키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평소 유중철과 이순이의 신덕과 사람 됨됨이를 신뢰하였던 까닭에 부부로 맺어 주어도 오누이처럼 지내며 틀림없이 동정을 지켜 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신부는 두 사람의 중매에 나섰습니다. 먼저 전주의 유항검에게 이순이를 소개하며 의향을 물었습니다. 유항검은 이순이의 집안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이순이의 어머니도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엮음

[지속 가능한 미래, 마라도에서 배우다]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는 제주도 모슬포 항에서 배를 타고 30분이면 도착하고, 2시간이면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섬이다. 마라도에 처음 전기가 공급된 것은 1975년 경운기 디젤 엔진을 이용한 5kW 용량의 발전기가 가동되면서부터였고, 해양국립공원지정 등에 따라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80년대 이후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문제로 몸살을 앓자 친환경 대안에너지로의 전환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마라도 역시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이 마라도의 청정 이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10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마을 전체가 사용해왔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시범사업의 효과로 방문객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 주민들은 민박과 음식점, 슈퍼마켓, 낚시배 영업 등 관광서비스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주민 한 명이 육지에서 골프 카트를 들여와 관광객들을 상대로 마라도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투어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마을주민의 대다수가 골프 카트 운행사업에 뛰어들면서 60가구가 사는 마을에 골프카트 대수만 70대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골프 카트에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 발전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다시 검은 매연이 나는 추가 디젤 발전기와 과거의 발전기까지 돌려가면서 밤낮 없이 전기를 생산해야만 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린 방문객들도 오랜 시간 섬에 머무르지 않고 골프 카트를 타고 섬을 한 바퀴 돌고는 떠나버려 마라도의 경제는 서서히 죽어갔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마을 구석구석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았고 생계를 위해 골프 카트 운송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마을 주민들, 그들은 지난 시절, 온정을 나누던 이웃사촌들이 그리웠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관광객 유치에 신경전을 벌이는 이웃들로 채워져 있었다. 다행히 욕망과 경쟁으로 얼룩졌던 골프 카트 산업이 여러 차례의 인명 사고로 인해 전면금지 되면서 마라도 주민들은 원래의 생업으로 복귀했고 경제도 되살아났다. 그리고 서서히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생겨나고 산들바람이 부는 동네 담벼락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찾아 들고 있다.

마라도는 인류의 욕망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무분별한 소비와 경제논리가 더 큰 욕망을 낳고 치열한 경쟁 속에 공멸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의 삶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양심과 복음에 따라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지만, 세속의 유혹을 뿌리치고 불편하고 절제된 삶을 선택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 김 검 회 엘리사벳/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